

중소 10곳 중 9곳 'AI 미적용'... 도입희망 기업 16% 그쳐

중기중앙회, AI 활용의향 조사

적용기업 5.3%, 미적용 94.7%
80.7% “우리사업에 AI 불필요”

“일반 중소기업, AI 이해도 낮아
산업별 AI 활용 강의 제공해야”

인공지능(AI)이 대세인데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AI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AI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향후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도 10곳 중 2곳에 못미쳤다.

중소기업중앙회가 9월25일부터 10월23일까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의향 실태 조사’를 실시, 4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현재 AI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힌

응답기업은 5.3%, ‘그렇지 않다’는 94.7%로 각각 집계됐다.

‘적용 기업’은 서비스업이 13%로, 제조업(1.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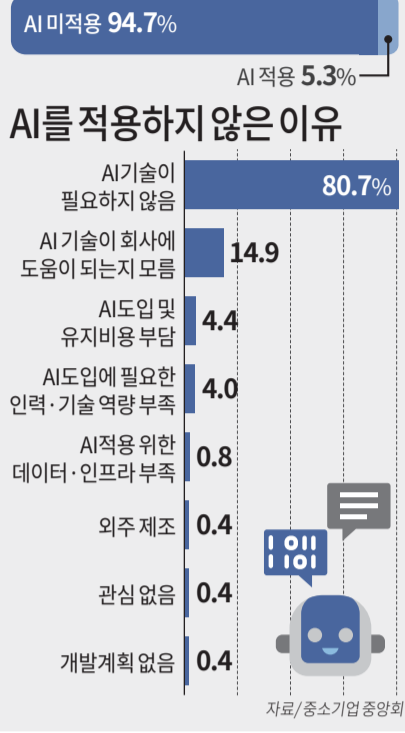
중소기업들이 AI를 적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낮은 필요성’과 ‘활용방법에 대한 인지부족’ 때문이었다.

설문 응답 중소기업 80.7%가 ‘우리 사업에 AI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회사 경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른다’(14.9%), ‘AI 도입 및 유지 비용이 부담된다’(4.4%)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AI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희망하지 않는 기업’이 83.7%로 ‘희망하는 기업’(16.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도입을 희망하는 경우도 서비스업(28%)이 제조업(10.5%)보다 훨씬 많았다.

AI기술 적용을 계획하고 있는 분야로는 ‘비전시스템으로 결함탐지·불량

중소기업 AI 적용 여부



률 요인분석’(44.7%)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새로운 시장·고객 개척, 마케팅·광고’(37.7%), ‘과거 판매데이터 분석 및 향후 판매예측’(31.3%) 순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선 ‘비전시스템으로 결함탐지·불량률 요인분석’을, 서비스업에서는 ‘새로운 시장·고객 개척, 마케팅·광고 AI 활용’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AI 활용 장애요인으로 ‘기업이 필요한 맞춤형 응용서비스 부족’(64.0%)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선 ‘투자가능 비용부족’(54.0%), ‘활용가능한 데이터 및 기반 정보의 한계’(43.0%) 순이다.

AI 활용을 위한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입 시 금융 및 세제 혜택’(84.0%), ‘산업 및 기업 규모 맞춤형 성공사례 및 성과 홍보’(66.3%) 등을 기대했다.

조사에 참여한 한 중소기업 부대표는

“일반 중소기업들은 AI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실제로 효과를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업별로 관련된 AI 활용 강의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일반적인 컨설팅이나 사례 제시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시대의 중요한 의제인 AI기술마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AI 리더러시’를 높이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경영지원 업무(CS·예산·마케팅 등)부터 AI를 도입하며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경험하도록 지원하면서, 업종 내 우수사례와 활용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co.kr

나이지리아 공무원 초청, 투자 노하우 공유

산업부-코트라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제도 등 교육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5일~8일까지 서울 코트라 본사에서 ‘WTO 투자원활화 협정 이행지원을 위한 나이지리아 역량강화 협력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2월 제13차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타결된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에 참여하는 개도국이 협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협정은 각국이 투자 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도

록해 글로벌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산업부는 협정 참여 개도국의 수요를 받고 코트라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에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카자흐스탄과 모로코의 투자원활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올해는 나이지리아의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 기관인 나이지리아 투자진흥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초청해 한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나이지리아 공무원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제도 및 체계, 투자 행정 실무, 인센티브 및 인지도 등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받는다. 또 한국 최대 투자 홍보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4’를 참관하고 서울시가 설립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기관인 인베스트 서울도 방문한다.

김창희 코트라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종합행정지원센터장은 “이번 나이지리아의 한국 방문은 글로벌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한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나이지리아와 적극 공유해 투자원활화 역할 향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오영주, UAE서 韓 中企 지원 협의체 열어

(중기부 장관)

중진공 운영 GBC 방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한국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열고 중동을 교두보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오영주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BIBAN 2024’ 참석에 앞서 두바이를 방문,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운영하는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한데 이어 현지서 관련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두바이 GBC는 중동의 주요 무역 거점 중 하나인 두바이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문을 열었다. UAE 최대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해 18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사무공간 제공, 제품 현지화(인증, 제품개선 등)와 같은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오 장관은 두바이 GBC 방문에 이어 ‘두바이중소벤처기업재외공관 지원 협의체’ 간담회에 참석해 그동안 협의체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이 두바이 현지에서 원활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중소벤처기업 재외공관 협의체는 중기부와 외교부가 지난 4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거점 확보와 현지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한 25개 지역의 재외공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주두바이 총영사관도 현지 진출기업 및 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10개 애로해소 및 44개 정보제공 등 두바이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해결뿐 아니라 현지네트워킹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김승호 기자

대동그룹, 로봇 기업 ‘대동로보틱스’ 설립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맞손

대동그룹이 농업용 및 산업용 인공지능(AI) 로봇사업을 본격 추진할 로봇 전문 자회사를 설립했다.

대동그룹 계열 대동모빌리티는 국내 최고의 로봇전문연구기관인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과 손잡고 조인트 벤처(JV)로 지능형 자율 로봇(Intelligent Autonomous Robots) 회사인 ‘대동로보틱스’(Daedong Robotics)를 설립, 계열사로 추가하고 그룹의 글로벌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으로 육성한다고 4일 밝혔다.

대동모빌리티는 ‘Beyond Mobility, Robotics’를 기치로 ▲ 소형트랙터 및 작업기 ▲ 가드닝(승용잔디깎이) ▲ 레이저(골프카트) ▲ 퍼스널(전기 스쿠터) 스마트 모빌리티의 전동화·지능화·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 이동용 체어로봇과 물류 배송 로봇도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대동모빌리티와 KIRO는 지난달 말

사업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략적 제휴 수준의 사업협력을 가시화하기 위해 KIRO 및 투자조합(로봇 전문가 중심으로 출자된 투자조합)은 로봇관련 특허권 및 특허사용권, 투자조합 출자금을 통해 대동로보틱스 초기 출자자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과 연구기관간 시너지로 미래 로봇시장을 창출하는 사업협력 모델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 계획이다.

대동로보틱스는 ▲ 농업·산업용 전문 서비스 로봇 ▲ 이동·운반용 개인 서비스 로봇 ▲ 청소·제설 등 특수 임무 등 3개 분야에 걸쳐 그룹 지능형 로봇 제품의 사업 기획, 제품 설계, 영업 및 마케팅, 서비스 등을 전담한다.

대동로보틱스의 초대 대표는 지난 20여년간 대동의 농기계, 모빌리티, 로봇 개발을 주도한 대동 감병우 상품기획부장이 맡는다. 아울러 대동모빌리티 및 그룹의 로봇사업 인력, 대동·KIRO 로보틱스센터 연구원들이 합류해 로봇 개발 및 사업화 속도를 높인다.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만원의 행복’ 이벤트

공영홈쇼핑이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과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아 ‘만원의 행복’ 이벤트를 진행한다.

4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100% 국내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공공기관 TV홈쇼핑으로서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과 농업인에게 힘을 주기위해 기획했다.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에 선 공영홈쇼핑 모바일 앱을 통해 7000원, 3000원 2종으로 구성된 1만원 쿠폰팩을 발급한다. 매일 선착순 3000명에게 지급하며 이벤트 기간 동안 ID당 1번만 받을 수 있다. 7000원 쿠폰은 5만원 이상, 3000원 쿠폰은 3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7일이다. /김승호 기자

영하 10도서 타설 ‘동절기 콘크리트’ 개발

유진기업, 시공비용 절감 효과에
기존보다 거푸집 탈형시간 단축

유진그룹 모회사인 유진기업이 겨울철 건설현장의 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낮은 온도에서도 타설이 가능한 동절기 콘크리트를 개발했다.

4일 유진그룹에 따르면 계열사 동양과 협력해 개발한 동절기 콘크리트는 영하 10도의 혹한 환경 속에서도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별도의 급열 보온이 필요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겨울에는 낮은 온도 때문에 콘크리트의 경화가 지연되거나 내부 수분이 얼어 경화가 중단되는 등 품질 유지에 어려움이 따른다.

유진기업이 이번에 출시한 동절기 콘크리트는 조강 시멘트와 특수 화학 첨가제를 활용해 시멘트의 수화반응을 빠르게 촉진시킴으로써 타설 후 40시간

전후에 5Mpa(메가파스칼) 이상의 압축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제품보다 거푸집 탈형시간을 더욱 단축시킨 것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늦은 오후에 마친다면 다음날 하루 양생을 거쳐 3일 째 오전에는 거푸집 탈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동절기에도 건설 공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보온양생 공정을 생략하여 시공비용 절감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시공성 면에서도 시공속도가 빠르고 겨울철에도 인력과 장비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유진기업 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동절기 콘크리트 개발이 건설 현장의 효율성과 품질의 극대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계절 내내 안정적 시공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